

## 미주총동창연합회 출범 3월 15~18일 LA서 창립총회 차기 총회는 내년 9월 뉴욕서



▲ 미주총동창연합회 신임 회장단.  
왼쪽부터 강태완(31회) 사무처장, 김인경(24회) 본국 사무처장,  
유인선(20회) 본국 총동창회장, 김민주(21회) 미주연합회장,  
최완섭(22회) 연합회 수석 부회장, 권일준(20회) 연합회 감사

북미주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동문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단체가 발족했다. 남가주와 뉴욕 등 각 지역 동창회장들은 지난 3월 15~18일 모임을 갖고 사대부중고 미주총동창연합회를 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창립 총회는 LA와 멕시코 엔세나다를 왕복하는 유람선 ‘카니벌 이매지네이션’에서 3박4일 일정으로 열렸다. 총회에선 남가주 동창회장인 김민주(21회) 동문을 만장일치로 초대 연합회장으로 선출했다. 수석부회장엔 최완섭(22회, 오레곤) 동문, 부회장엔 손명희(23회, 워싱턴 D.C.) 동문, 사무처장 강태완(31회, 남가주), 재무 김영태(24회, 남가주), 감사 권일준(20회, 뉴욕) 동문을 선임했다. 이외도 서부지역 고문에 최진석(16회), 동부지역 고문에 최영태(19회) 동문이 각각 위촉됐다.

창립총회엔 본국에서 유인선(20회) 총동창회장과 김진경(24회) 사무처장이 참석해 미주총동창연합회의 발족을 축하해줬다.

연합회는 본국 총동창회와 더불어 미국 유학을 준비하거나 유학 중인 모교 후배들의 현지 적응과 학업수행에 도움을 주는 연수 프로그램, 장학 사업 등 각종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아가기로 했다.

미주지역 동창회장단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서인지 처음엔 다소 서먹했으나 총회가 유람선에서 열린 탓에 곧 분위기가 고조됐다. 회의는 큰 이견이 없이 회장단을 선임하고 정관을 통과시키는 등 만족스런 성과를 냈다.

한편 2차 총회는 내년 9월 뉴욕서 열기로 합의했다. 권일준(뉴욕 고문) 동문과 김승호(뉴욕 이사장) 동문이 뉴욕대회를 자청, 각 지역 회장단이 박수로 승인하는 등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총회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 남가주 최진석(16회) 김민주(21회) 강태완(31회)
- 북가주 안영환(18회) 부부 오레곤 최완섭(22회) 부부
- 시애틀 한영한(16회) 부부 채양식(22회)
- 오클라호마 이상강(21회) 부부
- 뉴욕/뉴저지 권일준(20회) 부부 김승호(23회) 부부



워싱턴 D.C. 손명희(23회) 부부    애틀랜타 정승원(16회)  
총동창회장 유인선(20회) 부부    사무처장 김진경(24회)

### ‘크루즈’ 총회는 신의 한 수?

◆ 창립총회에 각 지역 회장단이 대거 참석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뭐니뭐니해도 ‘크루즈’ 여행이 큰 몫을 했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 호텔에서 3박 4일 일정으로 총회를 열었다면 과연 이처럼 많은 동문들이 모였는지 의문이라는 것. 참석자들은 “유람선 회의야말로 ‘신의 한 수’가 아니겠느냐”며 주최 측의 반짝 아이디어에 찬사를 던졌다.

### ‘통 큰 상’은 김승호 동문

◆ ‘통 큰’ 동문상이 있다면 단연 김승호 동문이 뽑혔을 터. 부부가 함께 참석한 김 동문은 참석자들에게 고급 와인을 한 병씩 줬다. 뉴욕서 호텔 등 레저사업을 하고 있는 김 동문은 내년 총회에선 이번 ‘크루즈’ 대회 못지 않은 알찬 행사를 펼쳐 보이겠다고 강한 의욕을 보이기도.

### “가문의 영광이로소이다”

◆ 연합회 부회장의 증책을 맡은 손명희(23회) 동문의 소감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손 동문은 “저 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라며 “정말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혼신의 힘을 다해 연합회 일을 보겠다”고 다짐. 한 동문은 벌써부터 차기회장 자리를 노리고 선거캠페인을 벌이는 거 아니냐며 익살.

### “생일 축하합니다”

◆ 총회 도중 예상밖의 ‘사건’이 일어났다. 다름아닌 최완섭(22회) 동문이 65회 생신을 맞은 것. 어떻게 준비했는지 주최 측이 최 동문에 고깔모자를 씌우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를 불러주자 최 동문은 감격에 겨워 눈을 채 뜨지 못하는 광경을 연출.

최 동문은 “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었다”며 소감을 피력. 최 동문은 연합회 수석 부회장의 ‘감투’도 써 이래저래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맞았다.

### 졸지에 ‘이산가족’된 부부

◆ 부부가 참석했으나 뜻하지 않게 각 방을 쓰게 된 안타까운 사연도. 애틀랜타의 정승원(16회) 여동문이 혼자 참석해 일어난 해프닝이었다. 그렇다고 독방을 줄 수도 없고 해서 안영환(18회) 동문 부부를 강제로 갈라 놓은 것. 안 동문은 최진석(16회) 동문과, 정 동문은 안 동문 부인과 ‘합방’을 하게 됐다. 졸지에 아내와 헤어져 ‘이산가족’이 된 안 동문은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니 얼마나 다행이냐”며 싱글 벙글.

총동창회장 축하

## 적극적인 참여로 하나되자



유인선 (20회)  
제 25대 총동창회장

사랑하는 천하부고 미주지역 선후배 여러분!  
흐르는 강물이 하나로 이루어지듯, 우리 모든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화합과 단결된 모습으로 자랑스러운 천하부고의 백년대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갑시다. 70여 년의 장구한 세월의 흐름 속에서 2만 7천여 동문들 가슴에 마음의 등불이었던 우리 모교의 교훈을 되새기며 인사말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 \* 올바른 사람이 되자.
- \* 튼튼한 사람이 되자.
- \* 따뜻한 사람이 되자.
- \* 쓸모있는 사람이 되자.
- \* 끝맺음을 잘하는 사람이 되자.

### 기사 제보 바랍니다

동창회보는 미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동문들을 하나로 엮는 ‘광장’입니다. 알리고 싶거나 공유할 이야기가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 이메일 : [snubugo2018@gmail.com](mailto:snubugo2018@gmail.com)